

## 들어가는 말

설교란 말씀이 말씀이 되게하는 것이다. 설교를 통하여 과거에 쓰여진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으로 증거되어야 한다. 그 동안 학교에서 배운 성서해석학은 학문의 장에서는 많은 발전을 해왔지만, 정녕 말씀이 준비되는 설교자의 책상에서는 활용되지 못했다. 성서해석학과 설교학은 분리될 수 없는 학문 분야이다. 말씀이 뿌리라면, 성서해석학은 말씀을 드러나게 하는 줄기와 같고, 설교학은 말씀이 결실을 맺는 열매와 같다.

성서해석학과 설교학이 함께 시너지를 생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두 학문 분야의 관계에 대해서는 학문적 토론이 상대적으로 적었다.<sup>1</sup> 이러한 시점에서 본 소고는 오늘날 현대 설교학이 요청하는 성서해석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설교학의 변천사를 살필 것이다. 현대 설교학은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다.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새로운 설교 형태와 방법론들이 소개되었고 많은 결실을 맺어 왔다. 오늘날 설교학이 추구하고자 힘쓰는 부분이 무엇이고, 어떤 기대와 방법들을 개발하고 있는지를 살필 것이다.

다음에 성서해석의 역사를 추적해 볼 것이다. 기독교 역사 2000 년 동안 다양하고 소중한 성서해석의 유산들이 있다. 어떤 것들은 땅 속에 묻혀버린 것도 있고, 외면을 당한 것도 있다. 어떤 것들은 강한 비판을 받아 주변으로 밀려난 것도 있다. 어떤 것들은 지나치게 강조된 것들도 있고, 어떤 것들은 평가 절하된 것도 있다. 따라서 기독교 역사속에 나타났던 다양한 성서해석의 방법들을 추적해보고 평가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대안은 설교를 염두에 둔 대안이 될 것이다.

## 설교학의 변천사

### 1. 전통적인 설교

---

<sup>1</sup> 설교학자 이상민은 2001년에 출간한 논문에서 설교학이 해석학 혹은 해석학적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소홀했다는 점을 설교학자로서 지적을 했다. 이로 인해 오늘날의 설교학이 더 발전하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되었다고 반성했다. 이상민, “신학과 해석학과 설교학의 관계성에 관한 연구,” *신학과 세계* 43 (2001): 370. 이상민 교수는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한 후 2003년에 감신대 구약학 왕대일 교수와 함께 *구약설교 패러다임: 구약학자의 설교이해, 설교학자의 구약해석*이라는 책을 발간하면서 해석학과 깊은 대화를 시도했다. 왕대일, 이성민, *구약설교의 패러다임: 구약학자의 설교이해, 설교학자의 구약해석* (서울: 감신대성서학연구소, 2003)을 참고하라. 반면에 유럽의 경우, 영국의 유능한 신약학자인 C.H. Dodd는 *사도적 설교의 기원과 발전*이라는 책을 출간하여 (1936) 성서학과 설교학 분야에서 고전적인 작품으로 인정을 받았다. C.H. Dodd가 성서학자로서 설교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사역을 반성하고 설교가 무엇인지를 자문하도록 한 것은 의의가 있다.

전통적인 설교는 본문 중심의 연역적이고 교훈적이며 선포 위주의 설교이다. 설교는 교회 예배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설교자의 권위와 카리스마에 크게 의존한다. 설교의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제설교, 본문설교, 강해설교가 주를 이루었다. 19세기에는 설교학이 하나의 학문 (Homiletics)으로 정착하기 시작했고, 설교의 구성, 전달 방식, 설교자의 역할 등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 특히 중세의 스콜라 신학의 영향을 받아 교리적인 명확성을 추구하였다. 설교의 전달에 있어서는 어거스틴 이후로 수사학적인 기법을 활용하였다. 토마스 롱 (Thomas Long) 은 어거스틴에서 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설교학은 내용에 있어서는 신학적 의미를 추구하고, 전달에 있어서는 설교의 형태와 스타일에 대한 수사학에 관심을 가졌다고 밝혔다.<sup>2</sup>

나아가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 성서해석에 있어서 이성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역사 비평적 방법이 대세를 이루었다. 의미를 밝히는데 있어서 본문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성서해석의 핵심과제였다. 마찬가지로 설교에 있어서도 설교자가 정한 의미와 해석이 권위를 갖게되었다. 따라서 전통적인 설교는 권위주의적이고, 일방적이며, 교훈적 설교의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 당연히 설교자와 청중은 수직적인 관계에 놓여 있게 되었다.

## 2. 새로운 설교학 (New Homiletic) 운동

설교학의 변천사를 살펴봄에 있어서 ‘새로운 설교학 운동’ (New Homiletic)은 설교학에 매우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였다. ‘새로운 설교학 운동’은 설교의 위기를 절감하면서 북미의 설교학자들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이 운동의 효시는 1958년 그래디 데이비스 (H. Grady Davis)의 책 *설교의 디자인 (Design for Preaching)*으로 보고 있다.<sup>3</sup> 그리고 이 새로운 설교학 운동의 최고의 정점에는 프래드 크래독 (Fred Craddock)<sup>4</sup>이 있다. 그의 저서 *권위 없는 자처럼 (As One without Authority)*이라는 책은 설교학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작품이 되었다. 크래독은 이 책에서 이야기 설교 (Narrative Preaching)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설교학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크래독은 성경본문을 통해 이야기를 재구성하고 이를 통해 신앙적 진리를 전달하는 새로운 방식의 설교 형태를 제시했다.

설교학자 김운용은 크래독의 책 *권위 없는 자처럼*이 출간된 1970년대를 기점으로 ‘새로운 설교학 운동’의 흐름을 소개하고 있다. 그는 새로운 설교학 운동을 3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태동 단계 (1970년대 이전), 꽃을 피우는 단계 (1970년대), 성숙기 (1980년대 이후)단계로 나누고 있다.<sup>5</sup> 본 소고에서도 이 기준에 따라 각 시대의 영향력있는 학자들과 특징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sup>2</sup> Thomas G. Long, “And How Shall They Hear?: The Listeners in Contemporary Preaching,” in *Listening to the Word: Studies in Honor of Fred B. Craddock*, ed. Gail R. O’Day and Thomas Long (Nashville: Abingdon Press, 1994), 172-73.

<sup>3</sup> 김운용, *설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4), 126.

<sup>4</sup> 프래드 크래독은 에모리 대학교의 캔들러 신학대학원에서 신약학과 설교학교수로 활동했다. 신약학과 설교학에 대한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 크래독은 20세기 후반 미국의 최고의 설교학자로 평가된다.

<sup>5</sup> 김운용, *설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126-142.

### 1) 새로운 설교학 운동의 태동 단계 (1970 년 이전)

이 시기의 대표적인 학자들로는 새로운 설교학 운동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그래디 데이비스 (H. Grady Davis)를 비롯해서 데이비드 랜돌프 (David J. Randolph)를 들 수 있다.<sup>6</sup> 이들은 성경본문의 형식이 설교의 형식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성경본문이 이야기의 구조이면 설교 역시 이야기 형식을 띠어야 한다고 했다. 복음서의 경우 9/10 가 이야기임으로 복음서를 설교할 때는 이야기 형식으로 설교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설교학의 태동 단계에서 설교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 (telling the Story)이라는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데이비스나 랜돌프를 통하여 설교에 있어서 이야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한편, 해리 에머슨 포스딕 (Harry Emerson Fosdick)은 설교가 인간의 실질적인 필요와 고민을 다루어야 한다고 보았다. 일상생활 속에서 실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스딕은 신학적 교리에서 벗어나 청중의 삶에 해답을 주는 설교를 해야 한다고 했다.<sup>7</sup>

### 2) 새로운 설교학 운동이 꽃을 피우는 단계 (1970 년대)

이 시기의 대표적인 학자들로는 찰스 라이스 (Charles Rice)와 프레드 크래독 (Fred Craddock)을 들 수 있다.<sup>8</sup> 라이스는 이야기 설교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청중과의 소통을 중시했다. 이를 위해서 설교자는 청중의 경험과 삶의 맥락을 고려한 이야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나님이 말씀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개 수단이 이야기라고 보았고, 이야기는 공동체 안에서 개인과 설교를 연결해 주는 가장 효과적인 매체라고 했다. 나아가 설교의 목적을 신앙 공동체가 함께 이야기를 공유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았다.<sup>9</sup>

크래독은 설교의 방법론에 관심을 가지면서 귀납적 설교 방식을 강조했다. 즉 전통적인 연역적인 설교방식에서 귀납적인 설교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촉구했다. 다시 말하면, 설교자 중심의 설교에서 청중 중심의 설교로 바뀌어져야 함을 역설했다. 귀납적 설교 방식을 취하면 자연스럽게 이야기 방식으로 설교가 전개되게 되어 있다. 그에 의하면 설교는 설교자가 권위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과 말씀의 여정을 함께 가는 것으로 보았다. 그에게 있어 설교자의 중요한 임무는 청중들로 하여금 말씀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진리는 경험을 통하여 입증될 수 있기 때문이다.

---

<sup>6</sup> H. Grady Davis, *Design for Preaching*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58); David James Randolph, *The Renewal of Preaching: A New Homiletic Based on the New Hermeneutic*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69).

<sup>7</sup> Harry Emerson Fosdick, *What is Vital in Religion: Sermons on Contemporary Christian Problem* (N. Y.: Harper, 1995) 를 참고하라.

<sup>8</sup> Charles L. Rice, *Interpretation and Imagination: The Preacher and Contemporary*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0); Fred B. Craddock, *As One without Authority* (Nashville: Abingdon Press, 1979).

<sup>9</sup> 김운용, *설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133.

김운용은 1970년대 새로운 설교학 운동은 “설교학적 방법론과 이야기의 기능이 재발견되었던 시기였으며, 청중의 위치를 새롭게 발견하면서 청중들을 설교의 중심으로 끌어 들였던 시기였다”<sup>10</sup>고 평가했다.

### 3) 새로운 설교학 운동의 성숙기 (1980년대 이후)

이 시기에 큰 역할을 한 설교학자로는 유진 라우리 (Eugene L. Lowry)를 들 수 있다.<sup>11</sup> 라우리는 설교는 교리적인 강해가 아니라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으로 보았다. 설교는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적인 움직임을 통해 결론에 다다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설교에는 플롯(plot)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 플롯은 부조화 혹은 갈등 → 갈등의 심화단계 → 전환을 통한 반전 → 복음을 경험하는 ‘해결’의 단계로 서서히 움직이는 것이다. 라우리는 크래독이 제시한 설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방법론적으로 더 심화시켰다.<sup>12</sup>

또 한 사람의 주목할 만한 학자는 데이비드 버트릭 (David Buttrick)이다. 그는 설교의 언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다. 설교자의 언어 사용이 어떻게 청중들의 의식 속에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연구했다. 따라서 청중들의 의식속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하고 어떻게 설교가 구성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찰을 했다. 이를 위해서 버트릭은 5-6개의 장면을 만들어, 사진 작가가 영상을 필름에 담듯이, 청중들의 의식속에 말씀이 새겨지도록 (현상이 되도록) 설교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그의 설교 방법론을 현상학적 설교라고도 부른다. 이 설교방식은 움직임과 연속성을 강조하게 된다.<sup>13</sup>

토마스 롱 (Thomas G. Long)<sup>14</sup>은 설교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청중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설교자가 청중의 문화적 배경, 사회적 맥락, 그리고 신앙적 상황을 고려하여 설교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성서학의 주석과 설교학의 주석을 구분하면서 성서의 주석은 텍스트 중심성이 되어야 하고, 설교학의 주석은 청중 중심성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에이모스 와일더 (Amos N. Wilder)<sup>15</sup>는 설교의 문학적, 예술적 요소를 강조하였다. 그는 성서학자로서 특히 신약 속의 수사적인 기술들을 연구하였다. 예수님은 거룩한 종교적 언어나 학자들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예술적인 표현과 창의적인 전달 방식을 통해 청중에게 깊은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와일더는 해석학적

<sup>10</sup> 김운용, *설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136.

<sup>11</sup> Eugene L. Lowry, *이야기식 설교구성 (The Homiletical Plot: The Sermon as Narrative Art Form)*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7). 이 책에서 라우리는 설교자는 전문적인 이야기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설교는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sup>12</sup> 김운용, *설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139.

<sup>13</sup> 김운용, *설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139.

<sup>14</sup> 토마스 롱은 프린스턴 대학교 신학대학원 설교학 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설교학자로서 성서주석에 용기있게 나선 대표적인 학자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

<sup>15</sup> 에이모스 와일더는 예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시카고 대학과 하버드 대학에서 가르쳤다. 프로 테니스 선수로서 워블던 복식선수로 나가기도 했다.

상상력을 강조하였다. “theopoetic”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기억, 깨달음, 예견 등의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상상력이 없으면 설교는 나무 토막같이 되며, 상상력이 없는 기도는 빈 껍질과 같으며, 상상력이 없는 교리는 경직화된다고 강조하였다.<sup>16</sup> 와일더의 상상력에 대한 강조는 감성이 중요한 포스트모던 시대에 적절한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해돈 로빈슨 (Haddon W. Robinson)<sup>17</sup> 역시 설교자가 청중의 상황과 필요를 깊이 이해하고, 이를 반영한 설교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설교는 청중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폴 윌슨 (Paul S. Wilson)은 네 페이지 설교 (four pages of the sermon) 형태를 제시해서 그동안 논의 되었던 새로운 설교학 운동의 주제들을 종합하는 성격이 있다.<sup>18</sup> 네 페이지라는 것은 페이지의 페이지수가 아니라 영화나 웹사이트의 장면들처럼 생생하면서도 오래 기억이 되도록 설교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새 설교학’ (New Homiletic) 운동은 설교학 역사 속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이루게 되었다. 전통적인 설교가 설교자 중심의 연역적이고 교훈적인 설교였다면, ‘새 설교학’이 추구하는 설교는 청중 중심의 ‘들리는 설교’를 추구한다. 새 설교학이 추구하는 설교 형태로는 귀납적 설교, 이야기식 설교, 현상학적 설교 등이 포함이 된다. ‘새 설교학’은 설교가 단순히 교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교의 내용과 형식이 다양해졌으며 청중과의 상호작용이 중시되었다.

### 3. 포스트모던 시대

포스트모던 시대의 설교를 고찰함에 있어 20세기 초반의 신학자 칼 바르트 (Karl Barth)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18세기,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의 거대한 흐름을 말씀의 신학으로 돌이키게 한 사람이다. 역사 비평은 성경을 객관적으로 연구하는데는 많은 부분 기여를 했지만 성경이 쓰여진 본래의 목적인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면에서는 침묵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르트는 말씀의 성격과 말씀이 쓰여진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었다. 로날드 하이네 (Ronald E. Heine)에 의하면 20세기의 칼 바르트는 마틴 루터처럼 성서를 재발견한 위인에 속한다.<sup>19</sup>

바르트는 성서해석의 과제를 ‘과학’으로 보지 않고 ‘신학’으로 보았다. 이러한 관점은 포스트모던 시대의 설교학에 대한 신학적인 토대를 마련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물론

---

<sup>16</sup> Amos N. Wilder, *Theopoetic: Theology and the Religious Imagination*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6), 2

<sup>17</sup> 해돈 로빈슨은 달라스 신학교에서 19년 동안 설교학을 가르쳤다. 덴버 신학교 총장을 역임했고, 고든 콘웰 신학교에서 구약학 석좌교수로도 봉직했다. 그의 대표작은 *강해설교: 강해설교의 원리와 실제*이다.

<sup>18</sup> 네 페이지 설교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Paul S. Wilson, *The Four Pages of the Sermon: A Guide to Biblical Preaching* (Nashville: Abingdon Press, 1999)를 보라.

<sup>19</sup> 왕대일, “성서해석사에서 배우는 설교의 과제,” *신학과 세계* 84 (2015): 38

포스트모던 성서해석학과 바르트의 성서해석학의 신학적 입장은 다르지만 텍스트를 보는 시각에 있어서 큰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온 것이다. 그 패러다임의 전환이란, 텍스트를 ‘역사’로 보지 않고 ‘스토리’로 보았다는 점이다.

21 세기에는 포스트모던 사상이 설교에 큰 영향을 미쳤다. 포스트모던 설교학은 절대적 진리보다는 다양한 해석과 관점을 인정하며, 회중의 경험과 감정을 중시한다. 설교는 일방적인 선포가 아닌 회중과의 대화와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체의 신앙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또한 미디어의 발달과 함께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설교가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설교의 대중화에 기여했으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설교가 전달이 되었다.

## 현대설교의 추세

설교의 변천사를 보면서 설교의 패러다임은 계속해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설교학자들은 시대에 따른 “설교의 주기”가 있다고 관찰했다. 클라이드 팬트 (Clyde Fant)는 이 설교의 주기를 “탐색 (search), 발견 (discover), 흥분 (excitement), 일상화 (routinization), 권태(boredom), 환멸 (disillusionment), 그리고 다시 탐색하는 것”으로 밝혀냈다.<sup>20</sup>

설교학의 역사를 고찰하면서 “설교의 주기”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오늘날도 설교의 내용과 형식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끊임없이 듣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도 시대에 맞는 설교의 형태를 찾아내야 하고 이에 맞는 설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따라서 오늘 이 시대의 설교의 추세를 살펴보고 이에 적절한 성서해석의 방향이 제시가 되어야 한다. 현대 설교의 변천사를 살펴보면 현대 설교의 추세를 아래와 같이 파악할 수 있다.

### 1. 청중의 중요성

현대 설교의 특징은 청중 중심의 설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설교자는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의 상황과 필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배경까지 고려하여 설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중과의 대화를 중시하고 그들의 삶의 맥락에서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우려야 한다. 이럴 때 설교는 더욱 생동감이 있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 2. 이야기의 중요성

현대 설교에서 두드러진 추세는 이야기 설교 (Narrative Preaching)의 중요성이다. 이야기 설교는 청중들로 하여금 성경의 메시지를 개인적이고 체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설교자는 이야기를 통하여 복잡한 신학적 개념들을 쉽게 전달할 수 있다. 이야기 설교는 청중과의 관계 형성에도 효과적이며 교회의 공동체성을 강화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

---

<sup>20</sup> Clyde E. Fant, *Preaching for Today*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 1975), 10-12. 김운용, *설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4), 115.에서 재인용.

리차드 에스링거 (Richard L. Eslinger)는 성서해석에 있어서 해석학적 상상력을 강조하고 있고, 이것이 곧 감동적인 이야기로 연결이 된다고 하였다. 이야기는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이며 우리의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따라서 이야기는 필수적인 해석학적 도구가 된다.<sup>21</sup>

유진 라우리는 이야기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전략적 지연” (delay)을 통하여 청중들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귀납적 설교에 가장 적절한 양식이라고 주장한다.<sup>22</sup> 웨인 로빈슨 (Wayne Bradley Robinson)은 설교에서 연설의 특징과 이야기의 특징을 구별해서 설명했다. 연설은 구성이 정적 (being)이며 연역적 (deductive)이다. 반면에 이야기는 동적 (becoming)이며 귀납적 (inductive)이다. 연설은 인간의 원죄 (original sin)를 강조하지만, 이야기는 창조시 선함 (original goodness)을 강조한다. 연설은 논리적 (logic)이고 권위적 (authoritarian)이지만, 이야기는 상상력 (imagination)을 강조하고 초대 (invitational)에 초점을 맞춘다. 연설은 자신을 감추지만 (self-veiling), 이야기는 자신을 드러낸다 (self-disclosing). 연설은 추상적이고 일반적 (abstract/ general)이지만, 이야기는 구체적이고 상세 (concrete/ specific)하다.<sup>23</sup> 로빈슨은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연설과 비교하여 설명하면서 이야기의 장점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내보여 주고 있다.

이렇게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 볼 때 현대설교는 이야기의 중요성을 절대적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다양성의 추구

현대 설교는 다문화적이고 다종교적인 맥락을 반영한 설교가 강조되고 있다. 설교자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신앙을 가진 청중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

### 4. 간 학문적 접근

현대 설교는 다른 학문과의 연계가 중요하다. 비단 신학뿐만 아니라 사회학, 심리학, 교육학, 커뮤니케이션 이론 등 다양한 학문적 통찰을 통합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설교를 해야 한다.

## 성서해석의 변천사

### 1. 최초의 성서해석

---

<sup>21</sup> Richard L. Eslinger, *A New Hearing: Living Options in Homiletic Method* (Nashville: Abingdon Press, 1987), 20.

<sup>22</sup> Eugene L. Lowry, *The Sermon: Dancing the Edge of Mystery* (Nashville: Abingdon Press, 1997), 24.

<sup>23</sup> Wayne Bradley Robinson, *Journeys toward Narrative Preaching* (New York: The Pilgrim Press, 1990), 97-99.

고대유대주의 성서해석은 에스라와 함께 시작했다고 볼수가 있다. 느8:8 에 잘 나타나 있다. “하나님의 율법 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They[Ezra and Levites] read from the Book of the Law of God, making it clear and giving the meaning so that the people could understand what was being read).

에스라 이전에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은 성전이였다. 성전 종교의 중심은 제단이였다. 이 제단에서 토라로 신앙의 구심점을 옮기게 된 것은 에스라때 부터이다. 이런 내용이 느8장에 잘 나와 있다. 이곳에 보면 나무장단, 말씀을 낭독하는 에스라, 그 말씀을 해석하는 레위인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백성들이 나온다. 이것들은 성경해석의 요소들이다. 성경해석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다. 제단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이다. 말씀을 낭독하고 이것이 해석이 되며 사람들이 깨닫고 눈물을 흘리는 역사가 나타났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전환이 일어난 것이다. 에스라 시대의 성서해석의 특징은 청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히브리어에서 아람어로) 통역을 해주었다는 것이다.

## 2. 유대적 해석과 미드라쉬

미드라쉬는 유대교의 전통적 성서해석 방법으로, 성경 본문을 새로운 시대적 맥락에서 재해석하여 현재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되었다.<sup>24</sup> 대표적인 예로, 역대기(Chronicles)는 열왕기(Kings)의 역사 기록을 바벨론 포로기 이후 유대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재해석한 사례로 볼 수 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유대인들은 그들의 생존과 공동체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과거의 이야기를 다시 읽고 재해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재의 유대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다. 이와 같은 해석적 전통은 이후 랍비들에 의해 더욱 체계화되었으며, 미드라쉬라는 독특한 성서 해석 방법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미드라쉬의 성서해석은 성경의 뜻이 하나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독자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해석의 원칙은 미도트(*middot*)<sup>25</sup>라고 불리며, 히브리어 단어의 형태와 의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특징이다. 랍비들은 성경의 문자적 의미 안에 깊은 영적 의미가 숨어 있다고 보았으며, 미드라쉬를 통해 지속적으로 텍스트를 해석하고 발전시켜 나갔다. 이들은 성경이 끊임없이 해석될 수 있는 열린 텍스트라고 보았다. 랍비들은 성경의

<sup>24</sup> “미드라쉬” (*mdrs*)라는 말은 히브리어 “다라쉬” (*drs*)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이다. 다라쉬는 “묻다” “조사하다” “찾다” “야훼의 말씀을 구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 미드라쉬는 포로기 이후 “토라의 연구”를 지칭하는 전문용어로 고정되었다. 랍비들의 미드라쉬는 크게 두 개의 축으로 되어있다고 말할 수가 있다. 하나는 문자적 의미(일차적 의미)와 실천적 의미(이차적 의미)를 해설하는 것이다. 즉 문자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페샷트, *peshat*)과 상황에 적용되는 의미(데라쉬, *derash*) (applied meaning)하는 것으로 나눌수 있다. 랍비들은 주로 데라쉬의 의미를 추구했지만 8세기 이후에 전통적인 해석 방법에 반대하고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한 유대주의 소종파인 “카라이트” (Karaites)가 주도한 페샷트 (*peshat*) 해석방법이 10-13세기에 꽃을 피우기도 했다. 왕대일, *새로운 구약주석* (서울: 성서연구사, 1996), 69-84를 참고하라.

<sup>25</sup> 미도트 (Middot, מִדּוֹת)는 히브리어로 “측정,” “기준,” “규칙”의 뜻을 가지고 있다. 성서해석에서는 “해석 기준” 또는 “해석 원칙”을 말한다.

문자가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믿으며, 텍스트는 계속된 해석을 통해 그 의미가 드러난다고 보았다. 미드라쉬라는 장르의 범위는 상당히 넓지만 성경해석과 연관해서 미드라쉬는 고대의 가르침을 오늘의 상황속에 적용하기 위해 그것을 ‘오늘의 말씀으로 풀어서 듣는 해설’ (contemporization)을 가리킨다.<sup>26</sup>

### 3. 페셰르 (peshet)식 해석

페셰르는 쿰란 공동체의 성서해석방식을 말한다.<sup>27</sup> 경전에 숨겨진 내용을 오늘의 상황이나 자신의 공동체의 입장에서 관독해낸다. 단 9장에서 다니엘이 램 29장을 해석한 것이 페셰르에 해당한다.<sup>28</sup> 예레미야는 주전 597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유다 사람들에게 70년간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정착하며 살라고 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에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다. 그러나 이 예언은 성취되지 않았다. 70년이 지났어도 유대 백성들은 여전히 이민족의 지배를 받았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로 이어지는 강대국들의 통치는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시점에서 다니엘은 페셰르식으로 예레미야의 예언을 다시 해석한다. 다니엘은 예레미야가 전한 70이란 숫자에 집착하지 않는다. 70년을 70이레라는 암호로 바꾸어 해독하고자 했다 (단 9:24). 이 70이레 마저도 일곱이레와 예순두이레가 지나갔다고 보았다 (단 9:25). 남은 한 이레 마저도 그 절반은 지나갔다고 해석했다 (단 9:27). 이제 “반 이레” 만 남았다고 본 것이다. 주전 2세기 중반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의 폭정에 항거하여 일어났던 동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준 것이다. 이제 곧 전쟁은 승리로 끝날 것이라는 메시지를 새롭게 해석하여 전해 준 것이다. 이것이 바로 페셰르적인 성서해석 방법이다. 성경을 읽는 목적은 과거의 의미를 알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다니엘이 70년이라는 숫자를 해석할 때 이성적으로 탐구한 것이 아니라 기도와 금식을 통하여 그 뜻을 찾고자 했다는 것이다 (단 9:3).

오늘날의 설교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오늘의 상황에 들려지는 말씀으로 듣기 위해서 다니엘이 수행했던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단 9:3) 라는 다니엘의 자세를 배워야 할 것이다.

이렇게 페셰르의 예처럼 유대교 랍비들은 주후 70년 성전의 멸망 이후 더욱 경전을 중요시했고 이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본래의 의미를 버리지 않으면서 본문의 이차적 의미를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터득하고자 했다.

### 4. 알레고리 해석

알레고리 해석은 교부시대와 중세시대의 주된 해석의 방법이었다. 교부시대의 성서해석은 단순히 텍스트의 의미를 분석하는 작업이 아니라, 신앙생활과 깊이 연관된 영적 수련의 일환으로 간주되었다. 오리겐은 이러한 성서해석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헬라 철학의

<sup>26</sup> 왕대일, *새로운 구약주석* (서울: 성서연구사, 1996), 74.

<sup>27</sup> Anchor Bible Dictionary, s.v. “Perashim, Qumran.”

<sup>28</sup> 왕대일, “성서해석사에서 배우는 설교의 과제,” *신학과 세계* 84 (2015): 17-18.

알레고리와 유대교의 미드라쉬 전통을 결합하여 성서를 해석하였다. 그는 성경의 각 구절이 세가지 차원 즉 몸 (문자적 의미), 정신 (윤리적 교훈), 영 (알레고리적 의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도와 묵상, 그리고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을 통해 성경의 깊은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고 보았다. 교부들은 성서해석을 통해 단순한 이성적 이해를 넘어선 영성의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믿었다. 어거스틴 역시, 이러한 해석학적 전통에 큰 영향을 미쳤다.

중세시대는 스콜라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학문적이고 교리적인 체계를 단단히 세워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시대 역시 그 근저에는 알레고리 해석이 주류를 이루었다. 중세기에는 성경 본문을 네 가지 차원에서 해석하는 방식이 자리 잡았다. 이 사증적 해석 방법은 문자적 의미, 알레고리적 의미, 도덕적 의미, 아나고지 (Anagoge)적<sup>29</sup> 의미로 구분되며, 이는 13세기 중세 교회에서 널리 유행했다. 문자적 의미는 사건의 사실적 의미를, 알레고리적 의미는 신학적 교리를, 도덕적 의미는 도덕적 교훈을, 아나고지적 의미는 종말론적 차원을 가리킨다.

13세기 프란체스코 (Franciscan) 수도회 소속의 신학자이자 추기경이었던 보나벤투라(Bonaventura)는 삼위일체 교리에 기초하여 성경역시 문자적 의미의 표층아래 세가지의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 세가지 의미는 알레고리적 의미, 도덕적 (또는 모형론적)의미, 신비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리처드 리셔(Richard Lischer)는 알레고리 해석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설교하고 있다.

알레고리적 해석 즉 비유적 해석은 많은 기능을 수행한다. 그것은 성경 전체의 신적 권위를 보호하고, 은혜와 사랑과 같은 신학적인 핵심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도 중요한 신학적 진리를 추출해 내며,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을 상실한 해석자의 영성을 개발시키는데 도움을 준다.<sup>30</sup>

한편, 중세시대에 알레고리 해석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안디옥 학파는 문자적인 해석을 강조했다. 텍스트의 문맥과 저자의 의도를 중시했다. 문자적 해석이 비유적 해석보다 우선한다고 보았고, 텍스트의 원문과 문맥을 고려하여 의미를 규명하려 했다. 이 해석의 이론은 루시안 (Lucian), 도로테우스(Dorotheus), 디오도루스 (Diodorus), 뭉수에스티아의 테오도르 (Theodore of Mopsuestia)와 크리소스톰 (Chrysostom) 과 같은 인물들을 자랑했다. 하나의 학파로서 이 해석의 이론은 제롬에게 영향을 주었고, 서방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의 알레고리 해석에 주의를 환기시켰다. 이 이론은 또한 중세의 해석에 영향을 주었으며 종교 개혁자들의 해석학에서 다시 나타났다.<sup>31</sup>

<sup>29</sup> 아나고지 (Anagoge)라는 말은 헬라어 ἀναγωγή에서 온 말이다. 이 헬라어의 의미는 ‘위로 이끌다’이다. 아나고지적 해석은 성경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나 최종적인 영적 목표로 향하는 길을 보여준다고 믿는다. 이를 통해서 인간이 영혼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성경의 가르침을 삶에 적용할 수 있게 해준다.

<sup>30</sup> Richard Lischer, *설교신학의 8가지 스펙트럼*, 정장복 옮김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8), 211.

<sup>31</sup> 버나드 램, *성경해석학 (Protestant Biblical Interpretation)*, 정득실 옮김 (서울: 생명의 말씀사,

## 5. 모형론 (Typology)적 해석

모형론적 성서해석은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과 사건들에서 예수님의 모형 또는 상징을 찾는 성서해석 방법을 말한다. 초대교회는 구약의 내용을 그리스도 중심적(기독론적)으로나 종말론적으로 읽었다.<sup>32</sup>

제임스 샌더스 (James A. Sanders)는 토라가 이야기 (*mythos*)와 규범 (*ethos*)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울은 토라의 이야기 (*mythos*)를 그리스도가 이룬 구속의 역사로 전환시킴으로 유대교를 뛰어넘은 기독교 신앙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고 설명한다.<sup>33</sup>

모형론적 해석의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구약의 아담은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을 모형한다 (롬 5:14). 출애굽사건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모형한다. 유월절 어린양의 피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홍해를 건넌 사건은 세례를 모형한다 (고전 10:1-2). 모세가 든 구리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형한다 (요 3:14-15). 구약의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을 모형한다 (요 2:19-21). 모형론적 해석은 구약과 신약의 연결성을 말해주고 구속사의 흐름을 말해준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구속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으신지를 보여준다.

## 6. 비평적 성서해석

### 1) 제 1의 비평시대 - 저자의 권위

제 1의 비평시대는 저자의 권위가 강조된 시기이다. 즉 성경의 원저자가 의미를 결정한다는 주장이다. 그럼으로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저자, 독자, 문화적 배경들을 살피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해석의 방식을 역사비평이라고 말한다.

15세기 인문주의자들은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 문헌을 회복하고 연구했다. 이들은 원문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저자의 의도와 의미를 복원하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접근은 중세시대 성서해석에 대한 반동에서 나왔으면 근대 성서해석에 중요한 전환점을 가지고 왔다. 근대에 들어서면서, 저자는 의미의 창조자이자 기호에 대한 주권적 주체로 이해되었다. 의미는 저자에 의해 결정되며, 따라서 해석은 저자의 의도를 정확히 재현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 시기의 해석학은 ‘의미의 고향’으로서의 저자 개념을 중요시했다. 저자는 의미의 주권적 주체로 간주되었으며, 해석은 저자의 원래 의도에 충실하려는 노력을 반영했다. 해석학적 실재론을 주장했다.

18세기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이성에 바탕한 성서해석의 큰 흐름을 역사비평의 방식으로 흘러갔다. 역사비평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 본문의 원래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 텍스트의 역사적 맥락과 저자의 의도를 분석하는 접근이다. 역사비평의 접근법은 성경을 학문적,

---

1970), 83-84.

<sup>32</sup>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R.P.C. Hanson, "Biblical Exegesis in the Early Church," in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Bible: From the Beginnings to Jerome*, ed. P.R. Ackroyd and C.F. Eva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0), 412-453.를 참조하라.

<sup>33</sup> James A. Sanders, "Torah and Christ," *Interpretation* 29/4 (1975): 372-90

이성적, 과학적 방법으로 분석하려는 시도로 이어졌으며, 19세기 독일의 개신교 학자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발전했다. 19세기에 이르러 역사비평은 성경을 신앙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역사적 문서로서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 2) 제 2의 비평시대 - 텍스트의 권위

제 2의 비평시대는 텍스트의 권위를 존중하는 ‘공시적 성서해석 방법’ (synchronic biblical exegesis)을 추구한 시기이다. 성서 본문을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분석하는 전통적인 통시적(diachronic)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본문 자체의 구조와 내용을 분석하는 방법론이다.

공시적 해석은 성서 본문을 역사적, 사회적 배경의 산물로 보는 것을 넘어선다. 역사비평에서는 본문의 저자와 시대적 맥락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두었지만, 공시적 해석은 본문 자체와 그 안의 메시지, 구조에 중점을 둔다. 본문을 통해 그 이면 (behind the text)의 역사를 재구성하려는 노력 대신, 본문 자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와 의미를 분석한다.

공시적 해석은 본문이 문학적 작품임을 인정하고, 양식비평을 넘어서서 수사학적 비평이나 신문학비평을 시도한다. 즉, 본문의 문학적 기법, 표현, 구조를 분석하여 본문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파악하려고 한다. 성서 본문의 최종 형태를 오랜 편집의 산물로 보는 편집비평을 넘어서서, 최종 본문의 구조와 형태를 성서해석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본문의 최종 형태와 구성을 분석하여 본문이 전달하려는 핵심 메시지와 의미를 파악하려고 한다.<sup>34</sup>

공시적 성서해석은 성서 본문을 그 역사적 배경이나 저자보다는 본문 자체와 그 문학적, 신학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이 접근법은 본문이 펼치는 이야기와 세계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며, 역사에서 스토리로의 전환을 통해 성서 해석의 패러다임을 통시적 관점에서 공시적 관점으로 이동시키는 계기를 제공했다.

## 3) 제 3의 비평시대 - 독자의 권위

루돌프 볼트만 (Rudolf Bultmann)은 성경에 대한 비신화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것은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주장처럼 성경을 폐기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가 시도하려고 했던 것은 고대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가를 제시한 것이다. 신약성경의 본래적 핵심을 추출해서 새로운 시대에 맞게 그것을 재해석하려고 시도한 것이다. 그는 슐라이어마허로부터 순수하게 객관적인 해석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배웠다.<sup>35</sup> 볼트만의 실존주의적 성서해석은 성경의 본문에 다양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실존주의 신학을 통해서 드러냈다. 다시 말해 성경의 텍스트도 우리의 삶과 연관이 된 경우에만 의미가 있게 된다.

볼트만의 제자였던 게하르트 에벨링 (Gerhard Ebeling)은 본문에서 설교에 이르는 과정은 과거에 일어났던 선포가 지금 여기에서 다시 일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즉 과거의 기록된 말씀이 오늘의 선포된 말씀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지금

<sup>34</sup> 왕대일, “성서해석사에서 배우는 설교의 과제,” *신학과 세계* 84 (2015): 38-39.

<sup>35</sup> Richard Lischer, *설교신학의 8가지 스펙트럼*, 정장복 옮김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8), 243.

여기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sup>36</sup> 볼트만과 에벨링은 오늘의 상황 (context)이 중요함을 천명하였으며, 텍스트를 읽는 독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우치게 했다.

## 7. 포스트모던의 성서해석

현대에 와서는 근세에 주도적으로 행해졌던 저자 중심의 성서해석에 의문을 제기했다. 자크 데리다의 해체주의는 저자의 권위를 부정하고, 의미와 진리가 언어와 해석의 산물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데리다는 해체주의를 통해 전통적인 의미론과 형이상학을 비판하며, 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해석적 층위를 통해 드러나는 자의적 성격을 지닌다고 보았다. 이로 인해 해석학적 비실재론이 등장하며, 의미는 독자의 관점과 해석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비실재론적 접근은 실재와 의미의 객관적 고정성을 부정하고, 텍스트의 해석이 본질적으로 상대적이라는 관점을 강조했다. 독자가 텍스트를 해석할 때, 그들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배경이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같은 텍스트도 독자의 배경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는 유대인, 17세기 청교도, 라틴 아메리카의 가난한 자들에 의해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리처드 로티 (Richard Rorty) 역시 철학을 단지 다양한 해석 중 하나로 보고, 개념이 자연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목적을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실재에 대한 유일한 견해가 없으며, 진리는 특정 공동체의 시각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로티는 철학이 궁극적 실재를 탐구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진리를 발견하기 보다는 텍스트와 세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스탠리 피쉬 (Stanley Fish) 역시 해석의 권위가 저자가 아니라 독자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석이 텍스트가 아닌 해석 공동체 (Interpretive Communities)의 규범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피쉬는 텍스트의 의미가 독자의 활동에 의해 생성된다고 강조했다.

19세기 니체는 진리와 의미가 인간의 건축물이라고 주장하며, 허무주의적 관점을 지지했다. 그는 기독교와 플라톤주의의 의미와 진리개념을 비판했다.

포스트모던 독자들은 저자의 죽음을 강조하며, 이는 텍스트의 의미가 고정되지 않고 독자의 해석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의미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독자의 주관적 해석에 따라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텍스트의 의미를 발견하기 보다는 창조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그들은 인간의 창의력과 가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서도 절대적 진리나 고정된 의미는 부정한다.

---

<sup>36</sup> Gerhard Ebeling, *Word and Faith*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63), 311-318, 327-31. 리처드 리셔, *설교신학의 8가지 스택트립*, 258-59. 에서 재인용.

## 설교학에 도움이 되는 성서해석학의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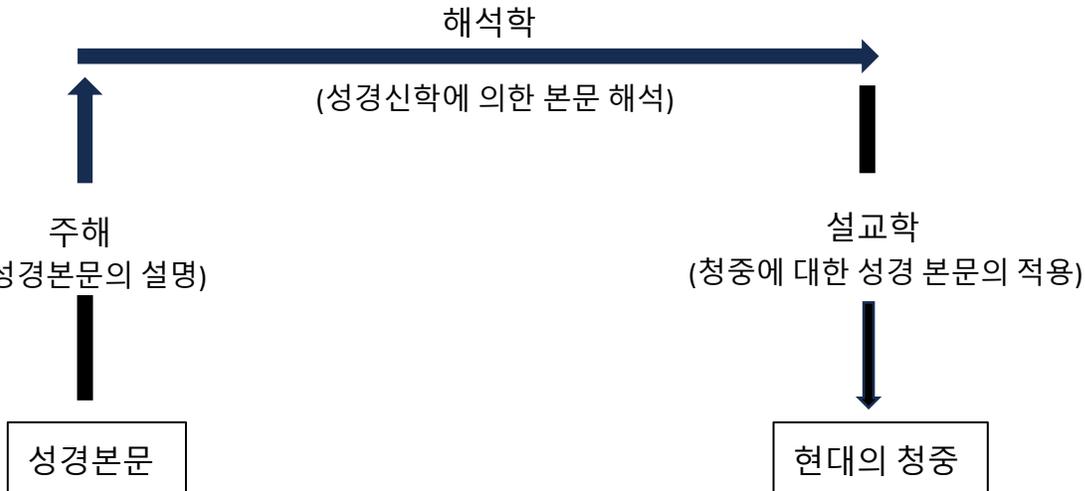
성서해석의 현대적 흐름을 보면 독자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설교학 역시 청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설교학에 도움이 되는 성서해석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성경을 경전으로 대해야 한다. 성경은 학문적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영적 삶의 지침서로 여겨야 한다. 성경을 읽을 때, 그 본문이 기록된 시대적 배경이나 저자의 의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문의 영적 의미와 삶의 지침을 찾는데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2. 영성적 독서를 실천해야 한다. 성경을 읽는 행위는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영적 성숙을 위한 수련의 과정이어야 한다. 기독교의 소중한 유산 중의 하나인 렉티오 디비나(*lectio divina*)라는 전통적 영성 독서법을 부활시켜야 한다. 즉, 성경을 읽고 (*lectio*), 묵상하고 (*meditatio*), 기도하고 (*oratio*),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 (*contemplatio*)이 중요하다.
3. 서구적 방법론과 동양적 경학의 통합을 이룬다. 서구적 역사 비평학이나 인문학적 성서 읽기 방식을 완전히 배제하기보다는, 그것들을 창조적으로 수용하여 한국적, 동양적 독서법과 융합해야 한다. 서구적 방법론의 합리성과 동양적 경학의 영성적 접근법을 결합함으로써, 성경을 더욱 깊이 있고 넓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4. 성경 해석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성서해석은 새로운 이론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살아내는 데 목적이 있다. 성경을 연구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제로 삶 속에서 실천하고 그로 인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성서해석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5. 뮈토스 (*mythos*)와 로고스 (*logos*)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근대적 사고가 로고스, 즉 이성과 역사적 실증주의에 치우친 반면, 성경 해석에는 뮈토스, 즉 상징과 이야기 속에서 진리를 찾는 방식이 필요하다. 성경의 이야기를 단순한 역사로 보지 않고, 그 속에 담긴 상징적 의미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고, 그 안에 '살아가는' 자세가 중요하다.

## Telling, Retelling, 그리고 Reframing

과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오늘의 청중들에게 살아있는 메시지로 전달할 수 있을까? 이 과업을 위해서 성서해석학의 역할은 지대하다. 광의의 개념으로 보면 성서해석학은 주해 (*exegesis*), 해석 (*interpretation*), 적용 (*application*)이 다 포함이

된다. 이들의 관계성을 그래엄 골즈워디 (Graeme Goldsworthy)는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도표로 설명해 주고 있다.<sup>37</sup>



위의 도표에서 1) ‘주해’ (exegesis)는 성경본문이 원래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찾아내는 작업이다. 원저자가 원독자에게 무엇을 전달하려고 했는지를 밝히는 작업이다. 2) ‘해석학’ (hermeneutics)은 고대의 성경본문이 지금 여기 (here and now)의 삶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에 깊은 관심을 갖는다. 3) ‘설교학’ (homiletics)은 주해로부터 시작하여 해석학의 과정을 거쳐 말씀이 청중들에게 구체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위의 도표는 설교학적인 관점에서 주해와 해석학과 적용의 요소들을 설명하는데 유익하다. 설교학적인 관점에서 주해를 ‘telling’으로, 해석을 ‘reframing’으로, 설교를 ‘retelling’으로 변환시킬 수 있다. ‘telling’과 ‘retelling’의 개념은 설교학자 정창균에게서 빌려왔다. 그는 설교란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 (telling)을 오늘의 청중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주는 것 (retelling)이라고 정의했다.<sup>38</sup>

‘reframing’ (재구성)이라는 개념은 도널드 캡스 (Donald Capps)가 목회상담에 적용한 개념을 차용했다. ‘reframing’이라는 것은 삶의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른 각도에서 그 삶을 재해석을 하는 것이다. 그는 페인트 칠을 하고 있는 아빠와 그 사다리를 위험하게 오르고 있는 어린자녀와의 일화를 예를 들고 있다. 아이가 높은 사다리를 올라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 아빠는 곧 떨어질 것만 같은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가슴이 뛰면서 당장 내려가라고 소리를 지를 판이었다. 그러나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다정한 목소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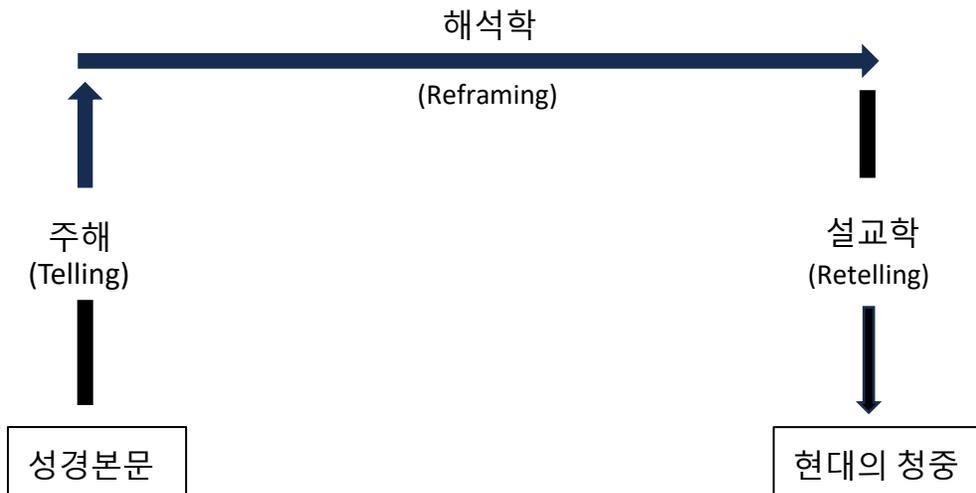
<sup>37</sup> Graeme Goldsworthy,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성경신학적 구약 해석법*, 김영철 옮김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1988), 53.

<sup>38</sup> 이승진, “정창균의 설교학,” *신학정론* 38 (2020.12): 53.

인사를 하고 그 아이가 올라오도록 했다. 결국 그 아이를 양손으로 붙들 수 있었고, 안전하게 지상으로 내려올 수 있었다.<sup>39</sup>

이 예화에서 어린 아이가 위험에 처해 있는 삶의 현실은 그대로 있다. 이것은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 보는 관점은 위험을 감지하고 위험의 신호를 소리를 질러 표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더 큰 불상사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을 직감하고는 다른 각도에서 본 것이다. 아이에게 심리적 안정과 그 아이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있음을 확신시킨 것이다. 같은 현실이지만 상황을 재구성한 (reframing) 것이다. 이것이 재구성의 해석학이다. 즉 어른의 관점에서가 아닌 아이의 관점에서 재구성 (reframing)하여 해석을 한 것이다.

설교학적인 측면에서 ‘telling,’ ‘retelling,’ ‘reframing,’ 의 관계를 그래엄 글즈워디의 도표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할 수 있다.



### 1. Telling

‘Telling’ 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text 를 말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text 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주해 (exegesis)가 필요하다. 즉 본문의 원래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위해서는 역사 비평적 방법이 필수적이다.

현대해석학에서 독자의 상황 (context)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역사비평의 방법을 배척해서는 안된다. 씨슬톤 (Anthony C. Thiselton)은 문제가 되는 것은 “역사적 비평이

<sup>39</sup> Donald Capps, *Reframing: A New Method in Pastoral Care*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0), 9. 이성민, “신학과 해석학과 설교학의 관계성에 관한 연구,” *신학과 세계* 43 (2001): 407-408에서 재인용.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역사적 비평이 차지하는 위치가 무엇인가?”<sup>40</sup>를 질문해야 한다고 바르게 지적했다. 성서해석에 있어서 독자의 상황 (실존)을 중시하는 볼트만 (Bultmann) 역시 “문법적 해석, 형식적 분석, 그리고 역사적 상황에 근거한 설명 등 해묵은 해석학적 규칙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타당하다.”<sup>41</sup>고 강조했다.

설교의 과정에서 이 주해의 과정을 생략하면 설교자가 하나님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가 말하고 싶은 말들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입장에서 이 과정은 필수적인 과정이다.

## 2. Retelling

‘Retelling’ 과정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현재의 청중에게 다시 말씀하는 과정이다. 즉 선포의 사건이다. 이 부분을 위해서는 설교학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설교학의 변천사를 살펴보면 이 부분에 많은 발전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설교자들은 설교학의 최신 이론들을 습득하면서 현대의 청중들에게 맞는 설교의 방법과 기술을 익혀야 한다.

## 3. Reframing

설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telling)에 대한 주해와 말씀을 잘 전달하는 설교학 분야가 매우 중요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본 소고에서는 ‘reframing’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해석학의 핵심은 ‘reframing’이기 때문이다.

### 재구성 (reframing)의 해석학

이제 어떻게 하면 성서해석학이 현대 설교학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과제가 남아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재구성 (reframing)의 해석학’이 필요하다. 청중들에게 들리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2가지 측면이 중요하다. 하나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전달 기법이다. 내용이 청중과 연관이 없다면 청중은 듣지 않을 것이다. 또한 좋은 내용이라도 전달 방법이 효과적이지 못하면 청중에게 전달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달에 대한 것은 설교학자들이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필자는 성서학자로서 해석학적 측면에서 고대의 말씀이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과 연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재구성 (reframing)의 해석학’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역사성에 대한 관점을 가져야 한다.

---

<sup>40</sup> Anthony C. Thiselton, *두지평 (The Two Horizons)*, 권성수 외 옮김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90), 54.

<sup>41</sup> R. Bultmann, “The Problem of Hermeneutics” in *Essays Philosophical and Theological* (London: S.C.M., 1955), 256. Anthony C. Thiselton, *두지평 (The Two Horizons)*, 권성수 외 옮김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90), 55. 에서 재인용.

성경은 역사적인 문서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역사라는 무대에서 펼쳐진 이야기들의 기록이다. 따라서 성서해석에 있어서 역사 비평의 공헌을 인정하고 그 방법론을 건설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다만 이 역사 비평의 방법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 안목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 한다. 역사 비평의 방법의 한계도 인식해야 한다. 역사 비평을 발전시킨 서구인들의 인식론에 대한 재평가도 필요하다.

종교개혁자들은 중세시대까지 중요한 성서해석 방법인 알레고리 해석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문자적, 문법적 의미를 성서해석의 과제로 제시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루터가 알레고리 해석을 비판하고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해석을 강조한 것은 성경의 권위를 뒤찾기 위함이었는데 오히려 역사비평의 등장으로 성경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말씀을 강조한 개신교가 결국에는 역사비평의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던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랍비적 성서해석이나 교부들의 성서해석 방법을 배척함으로써 나온 결과이기 때문이다.

문자적 역사적 해석방법이 500년 동안 지속되어 왔지만 이에 대한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 그 한계점의 결정적인 것은 서구의 과학적 세계관이 진리를 밝히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서구의 과학적 사고는 데카르트에게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상대주의와 실증주의가 요체를 이루고 있다. 이제 기독교의 종주국은 없다. 기독교가 서양 세계를 떠났고, 탈기독교사회가 되었다.

이문장 교수는 2003년도에 월드미션대학교에서 여름방학 특강을 한 적이 있다. 그는 서양 학문 세계의 특징을 네 가지로 요약했다. 1) Neutral 2) Detached 3) Distance 4) Objective. 이러한 학문적 방법을 가지고는 말씀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음을 정확하게 지적하였다. 이러한 서양적 사고에 근거한 역사비평의 방법은 성경의 텍스트를 고대 문서에 대한 역사적인 탐구의 대상 정도로 성경의 권위를 격하시켰다.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면서 말씀에 의해 삶이 변화되기 보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위에 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오늘날 서구신학에서 성경의 권위는 위기에 처해 있다. 성경을 학문적 연구대상으로 여기고 있지, 신앙공동체의 경전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성경의 역사성을 인정하되, 성경을 하나님의 역사적 섭리라는 큰 그림 속에서 파악하는 구속사적 성서해석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구속사적 성서해석 방법을 사용하면 위에서 지적한 역사비평 해석법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다. 나아가 구속사적인 성서해석을 하면 구속사의 중심인 그리스도 중심적인 (Christ-Centered) 성서해석을 할 수 있다.

그레엄 골즈워디(Graeme Goldsworthy)는 그의 저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 에서 성경신학적 성서해석법을 소개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성경신학적 성서해석이라는 것은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 (계시의 구조)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일관된 목적을 가지고 역사속에서 활동해 오셨으며 그 활동하신 바를 성경이라는 책에 남겼다고 보는 것이다. 골즈워디에 의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역사(salvation-history)를 통일성을 가지고 기록해 놓은 책이지 추상적인 개념들이나 교리들을 모아 놓은 책이 아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신 기록인 성경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하나님 나라’이다.<sup>42</sup>

나라를 구성하는 요건들은 백성, 영토, 주권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 백성들의 거처,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한다. 골즈워디는 이것이 그리스도안에서 성취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복음 안에, 즉 그리스도 자신에 안에 있다고 본다. 즉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가 하나님 백성의 거처이며, 그리스도가 통치의 주관자라고 보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계시의 최종적이며 충만한 표현이다. 예수님은 구약 전체의 목표이자 성취이다. 하나님의 진리의 구현으로서, 예수님은 성경을 해석하는 열쇠이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시작하는 이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의 신앙여정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킬 때 성경관을 포함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한다.

재구성 (reframing)의 해석학을 실현하기 위해 성경의 역사적 근거위에 역사비평 방법과 구속사적 성서해석 방법을 융합하여 창의적으로 사용한다면 과거의 이야기를 오늘의 이야기로 재구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2. ‘재구성 (reframing)의 해석학’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선 설교자의 자세가 중요하다.

말씀 앞에 선 설교자의 자세에 대해서 동양적 성서해석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을 수 있다. 동양적 성서해석은 동양의 경전을 대하는 자세와 깊은 연관이 있다. 경전을 대하는 한국인의 독서는 “독서백편의자현” (讀書百遍義自見)이라는 말로 대표된다. 이 말의 뜻은 아무리 어려운 글도 백 번만 읽으면 그 뜻이 스스로 밝혀진다는 의미이다. 동양인은 경전을 대할 때 서양인의 역사비평적 방법으로 경전을 대하지 않는다. 텍스트 이면에 있는 역사적 배경을 연구한 것이 아니라 본문 자체를 통해서 하늘의 이치나 삶의 이치가 어떠한 가를 깊이 성찰하면서 깨닫기를 원했다. 소리내어 읽고 암송하고 그 뜻이 깨달아질 때까지 음미했다.

경학 (經學)은 유교 경전을 해석하고 그 의미를 추구하는 학문이다. 다산 정약용은 경전을 읽고 해석할 때, 저자와 기록자의 의도, 문체 등을 면밀히 분석하면서도, 경전의 본질을 존중하고, 경문 주석을 통해 자신의 시대적 고민과 문제의식을 경학 사상으로 표현했다. 경학은 단순히 문자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도덕적 원리와 철학적 깨달음을 찾고자 했다. 정약용은 경학을 통해 의리(義理 옳은 이치)를 추구하며, 경전을 단순한 문서가 아닌 도덕적, 철학적 지혜의 원천으로 삼았다.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교부들 그리고 유대 랍비들은 성경을 비판하면서 읽지 않았다. 그냥 신앙공동체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었다. 동양인들 역시 자신들의 경전의 권위에

---

<sup>42</sup> Graeme Goldsworthy, *복음과 하나님 나라 (Gospel and Kingdom)*, 김영철 옮김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1988)를 참고하라.

도전하지 않았다. 이해가 될 때까지 읽고 암기하고 실천하기를 노력했다. 랍비들이나 교부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비평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었다.

말씀을 대하는 설교자는 동양인들이 경(經), 즉 경전(經典)을 대하는 자세로 성경을 대해야 한다. 동양에서 도의 세계는 2가지의 중요한 원칙이 있다. 하나는 집중 (생각이 깨어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반복이다. 또한 수양과 수행을 강조한다. 수양은 내면 세계를 갈고 닦는 것을 말하고, 수행은 삶속에서 진리를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말씀앞에 선 설교자가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과거의 이야기를 오늘의 이야기로 구성 (reframing)하는데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설교자는 설교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3. 재구성 (reframing)의 해석학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너머의 세계 (beyond the text)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와 같은 해석을 추구하는 것이 유대 랍비들의 미드라쉬적인 성서해석이고, 교부들의 알레고리 해석과 모형론적 해석이다. 미드라쉬의 구체적인 예가 쿰란 공동체가 추구해 왔던 페셰르 (*peshar*)이다. 유대교의 미드라쉬적인 성서해석의 방법을 헬라 철학으로 풀어가고자 한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의 필로 (Philo of Alexandria) 였다. 페셰르의 헬라적 변형이 알레고리라고 말할 수 있다.<sup>43</sup> 유대주의가 미드라쉬적인 해석방법의 유산을 남겼다면, 초대교회와 중세 교회가 남긴 성서해석의 유산은 모형론 (typology)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초대교회는 유대주의의 성서해석 방법을 받아 들여 구약의 내용을 기독교론적으로나 종말론적으로 읽었다.<sup>44</sup> 유대적 성서해석이나 교부들의 성서해석은 지금 여기에 있는 청중들을 말씀의 세계속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했던 것이다.

알레고리 해석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알레고리적인 해석이 너무 자의적인 해석으로 흘러간다면 이를 보완하면서도 납득할 수 있는 현대적 알레고리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필자는 이러한 현대적 알레고리를 ‘단계적 알레고리’로 부르고자 한다. 이 ‘단계적 알레고리’의 예를 사 35:1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라는 본문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다. 이 텍스트를 읽고 곧바로 ‘광야는 남한이고 사막은 북한입니다. 남한도 기뻐하고 북한도 즐거워할 때가 올 것입니다’라고 선언한다면 청중의 대부분은 당황해 하며 이러한 해석에 동감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단계를 밟아서 위의 결론에 도달했다면 역사적 본문과 연결이 된 알레고리가 될 것이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학자 이성민은 다음과 같이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시도한다.<sup>45</sup>

#### 1 단계 (본문의 역사적 의미)

예언자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유다를 광야로 비유한다. 이미 오래전에 멸망당한 사마리아는 생명력을 상실한 사막으로 비유한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광야와 사막처럼 황폐해 진 것이다.

<sup>43</sup> 왕대일, “성서해석사에서 배우는 설교의 과제,” *신학과 세계* 84 (2015): 19.

<sup>44</sup> 왕대일, *새로운 구약주석*, 85.

<sup>45</sup> 왕대일, 이성민, *구약설교 패러다임: 구약학자의 설교이해, 설교학자의 구약해석* (서울: 감신대성서연구소, 2003), 226-7

그러나 메시아가 그 땅에 올 때에 그 땅은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이 될 것이다. 그 때에 광야와 같은 유다는 기뻐하며, 사막과 같은 사마리아는 즐거워 할 것이다.

## 2 단계 (본문의 보편적 적용)

하나님을 떠난 백성과 나라는 광야와 사막처럼 황폐해진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은 생명력을 회복하게 된다.

## 3 단계 (본문의 현재적 실존적 적용)

남한은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떠남으로 광야와 같이 황폐해졌다. 북한은 사상의 우상에 빠져서 사막과 같이 생명력을 잃어 버렸다. 한반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한 회개를 할 때에 온전한 회복이 있다.

## 4 단계 (본문의 풍유화)

광야는 남한이고 사막은 북한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광야는 기뻐하고 사막은 즐거워할 것이다.

알레고리 해석을 할 때 본문의 역사와 동떨어지게 해석을 해서는 안되며 위의 예처럼, 역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단계적 알레고리 해석) 알레고리 해석의 풍부한 장점들을 오늘날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미드라쉬 해석, 교부들의 해석, 동양의 경학적 성서해석은 모두 너무 자의적인 해석으로 흐를 수 있지 않는가하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역사비평의 방법을 활용하면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미드라쉬와 경학은 심층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고, 역사 비평은 바운더리를 정해 줄 수 있다.王大일은 동양의 경전학이 기독교 공동체가 2000 년 동안 시행해 왔던 “렉티오 디비나” (*Lectio Divina*)와 같은 흐름 속에 있다고 본다. 렉티오 디비나식의 성경읽기는 말씀을 먼저 읽고 (*Lectio*), 말씀을 묵상하고 (*Meditatio*),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Oratio*), 말씀으로 사는 것 (*Contemplatio*) 를 목적으로 한다.

미드라쉬적 성서해석, 교부들의 성서해석, 그리고 동양적 성서해석을 잘 습득함으로써 말미암아 텍스트 너머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찾아낼 때 ‘재구성 (reframing)의 해석학’ 은 성도들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유익한 해석학이 될 것이다.

4. 재구성 (reframing)의 해석학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 있는 청중의 관점에서 성서를 해석해야 한다.

미드라쉬와 동양의 경학 모두 경전을 읽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독자의 문제의식과 시대적 고민을 반영하고, 이를 통해 텍스트의 깊은 의미를 탐구하려는 시도를 한다. 텍스트는 단순한 역사적 문서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독자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지혜를 제공하는 경전으로 기능한다.

미드라쉬와 경학은 경전을 읽는 행위를 단순한 학문적 연구가 아닌 깨달음의 수행으로 보았다. 유대교의 미드라쉬는 성경 본문에서 숨은 의미를 찾아내며, 독자의 종교적 함양과 깨달음을 강조한다. 경학 역시 경전을 통해 도덕적 원리와 철학적 깨달음을 추구하고, 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 실천하는 지혜를 얻도록 한다. 이러한 점에서 미드라쉬와 경학은 경전을 단순한 텍스트가 아닌 경(經)으로 대하며, 이를 통해 독자에게 깨달음의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

결국, 미드라쉬와 경학은 경전 해석을 통해 텍스트의 깊은 의미를 발견하고, 이를 현대의 문제와 연결하여 깨달음을 얻는 수행의 길로 이해한다. 이는 성경을 사실로 읽는 것이 아닌, 진리로 읽는 신앙 선배들의 열정과 연결되며, 오늘날의 성서해석에 있어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유대교 랍비들의 성경해석 방법인 미드라쉬와 교부들의 알레고리를 현대화하고, 동양적 성서해석 방법인 경학을 창의적으로 수용하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청중 중심의 설교학에 든든한 해석학적 동반자가 될 수 있다. 설교학적 관점에서 미드라쉬와 경학은 많은 통찰을 줄 것이다.

미드라쉬의 출발점은 성경 본문에 숨겨진 의미가 있다는 전제이다. 이 전제는 성경을 어제의 말씀이 아닌 오늘의 말씀으로 이해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으며, 성경 연구의 궁극적 목적을 학문적, 객관적 지식을 습득하는 데 두지 않고, 깨달은 도를 실천하는 삶에 두었다. 이를 통해 미드라쉬는 독자에게 성경을 지식의 습득이 아닌 깨달음의 수행으로 보게 하며, 독자의 사색을 풍부하게 하는 여정을 제공한다.

현대 설교학이 요청하는 성서해석은 상상력을 발휘하는 해석학이다. 워렌 위어스비(Warren W. Wiersbe)는 동방의 속담 중에 ‘위대한 선생은 사람들의 귀를 눈으로 변화시켜 그들이 진리를 볼수있게 만드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상상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드라쉬적인 해석과 균형잡힌 알레고리 해석은 상상력을 풍부하게하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안내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미드라쉬와 알레고리와 모형론이 교회 역사 속에서 성경해석에 영향을 미쳤고, 특별히 오늘 여기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리려는 목적하에 사용된 방법이라면 현대의 설교자나 설교학자 그리고 성서해석학자들도 교회의 유산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구약의 형성과정을 보면 토라는 예언서에서, 예언서는 성문서에서 재해석된 것을 알 수 있다. 신구약 중간기에 형성된 쿰란 공동체나 바리새파 유대교도 토라를 자신의 상황에 맞게 지속적으로 해석해 나간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과거에 선포되었던 말씀을 오늘의 상황에서 다시 음미하고 깨닫고자 했던 것이다.

‘재구성(reframing)의 해석학’을 위해서 현대의 청중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 미드라쉬적인 성서해석법, 교부들의 성서해석법, 동양적 성서해석법은 과거의 이야기를 오늘의 이야기로 재구성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청중 중심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현대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현대 해석학의 이론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안토니 씨슬톤 (Anthony C. Thiselton)은 그의 저서 두 지평 (The Two Horizons)에서 20 세기의 위대한 철학자 및 신학자들인 하이데거 (Heidegger), 볼트만 (R. Bultmann), 가다머 (Hans-Georg Gadamer), 그리고 비트겐슈타인 (Wittgenstein)의 철학적 해석학에 대한 깊고 자세한 안내를 해준다.<sup>46</sup>

하이데거는 해석자가 성서를 읽을 때 독립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본다. 해석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선이해를 가지고 텍스트를 대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따라서 성서는 해석자의 존재적 질문과 만나는 중요한 장이라고 주장한다.

볼트만은 성서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실존적 언어로 재 해석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성서가 인간의 현재적 삶 속에서 이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다머의 해석학은 전통과 선입견의 긍정적 역할을 강조하며, 계몽주의 이성 중심주의를 비판한다. 그는 독자가 성경을 읽을 때 이미 자신이 속한 전통과 선입견을 통해 텍스트를 이해하며, 이러한 선입견은 해석의 출발점이 된다고 본다. 가다머는 독자의 지평과 텍스트의 지평이 융합될 때 진정한 이해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며, 이를 '지평의 융합'(Fusion of Horizons)이라 부른다. 해석은 일방적인 명제적 이해가 아니라, 본문과의 대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대화를 통해 독자는 성경 본문에 도전받고 자아를 발견하게 된다. 성서해석은 단순히 과거의 의미를 밝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독자와 텍스트와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생산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전통은 해석의 필수적 요소이며, 본문을 통해 얻는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삶의 지혜이다. 성경 해석은 삶의 실천과 자아 변혁을 목표로 한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철학의 관점에서 성서를 해석하며 성서 텍스트의 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공동체와 언어적 맥락에서 다르게 사용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따라서 성서의 의미는 그 언어가 사용되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달라 질수 있다고 말한다.

결국 이 네사람의 공통점은 성서를 단순히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성경과 독자와의 대화 속에서 다양한 의미를 창출 할 수 있는 살아있는 텍스트로 이해한다. 청중과 독자를 중시하는 현대 철학자들의 통찰을 잘 활용한다면 ‘재구성 (reframing)의 해석학’을 실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나가는 말

본 소고에서 현대 설교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서해석학의 방법론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 ‘재구성 (reframing)의 해석학’을 제안했다. ‘재구성이 해석학’이라는 것은 성경본문의

---

<sup>46</sup> Anthony C. Thiselton), *두지평 (The Two Horizons)*. 권성수 외 옮김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90)을 참고하라.

말씀을 오늘의 상황과 개인의 삶에 맞게 이야기를 재구성 (reframing)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의 기초와 골격은 성경이 쓰여질 당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역사비평의 방법론을 건설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성경본문의 문법적, 역사적 배경을 충분히 연구하여 이야기를 재구성할 때 본문의 의미가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 (telling)은 주석 (exegesis)의 과제이고, 청중에게 다시 들려주는 부분 (retelling)은 설교학의 과제이다. 본 소고는 telling과 retelling 사이에서 과거의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어떻게 재구성 (reframing)할 지에 대해 관심을 기우렸다. ‘재구성 (reframing)의 해석학’을 위해서는 서양적 성서해석의 한계를 인식하고, 미드라쉬적 성서해석, 교부적 성서해석, 동양적 성서해석 등이 실천해 온 청중 중심의 성서해석 방법을 잘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서양적 사고방식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재구성 (reframing)의 해석학’은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소고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서해석학과 설교학의 현대적 추세는 청중과 이야기 중심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재구성 (reframing)의 해석학’은 현대 설교자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와 유익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말씀하신 것 (telling)을 오늘의 삶에 맞게 다시 말할 수 있는 (retelling) 풍성한 인사이트를 줄 것이고, 현실과 텍스트와의 만남의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증언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아쉬운 점은 ‘재구성 (reframing)의 해석학’을 실제 설교에 적용한 모델을 제시하지 못한 점이다. 연구 기간의 한계와 지면의 한계도 있지만 이 부분은 필자가 성서학의 전공자로서 설교학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이유가 가장 크다. 바라는 설교학에 대한 지식을 더욱 습득하여 ‘재구성 (reframing)의 해석학’과 현대 설교학을 잘 접목한 설교의 샘플들을 제시하기를 소망해본다.

## 논문 초록

본 소고는 설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서해석학의 방향에 대해서 고찰한다. 지금까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성경본문을 주해 (exegesis)하고 오늘의 상황에 맞게 해석 (interpretation)하여 청중들에게 적용 (application)하는 일반적인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은 합당하고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성서해석의 경향이 서구적인 해석 방법에 지나치게 치우쳐 왔다. 그러다 보니 성경이 오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생동감있게 청중들에게 다가오지 못했다. 성경을 과거의 책으로 머물게 했다.

본 소고는 설교학의 변천사를 살피면서 현대 설교의 흐름을 살핀다. 동시에 성서해석의 역사도 고찰하면서 현대 설교에 적용할 수 있는 성서해석의 방법과 과제가 무엇인지를 추적해 본다. 이런 과정속에서 역사비평에 대한 재평가를 시도하고, 유대적 해석, 교부들의 해석, 그리고 동양적 해석의 가능성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특별히 ‘재구성 (reframing)의 해석학’을 제시함으로써 본문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오늘의 시각으로 본문을 다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자신이 처한 현실을 말씀에 비추어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길이 보인다. 재구성의 해석학이라는 것은 미드라쉬적 성서해석, 교부적 성서해석, 철학적 성서해석, 성경신학적 성서해석의 과정과 원리들을 이해하여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다 보면 성경본문 속에서 풍성한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고, 지금까지 성경을 보는 눈이 경직되고 한정되어 있어서 적용의 범위가 좁고 답답했던 상황에서 더 넓고 더 깊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재구성의 해석학을 제시하기 위해서 설교학의 변천사를 살피고 현대 설교학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탐구한다. 이 탐구과정에서 발견한 것은 현대 설교학은 청중과 이야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성서해석의 변천사도 살핀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 다양하게 실천되었던 성서해석의 유산들을 살펴보고 ‘재구성 (reframing)의 해석학’을 위해서 필요한 유산과 장점들을 소개하고 있다. 과거의 말씀을 오늘의 상황에서 재해석하고자 하는 미드라쉬적 해석, 영적인 깊이를 더 하기 위해서 상징과 깊은 영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균형잡힌 알레고리 해석을 살핀다. 동시에 신구약을 통합적으로 살피기 위해서 성경신학적 접근 특히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을 시도한다.

Key Words: 해석학, 성서해석학, 설교학, 재구성의 해석학, 미드라쉬 해석, 동양적 성서해석, 교부들의 성서해석

## Abstract

This paper explores the direction of biblical hermeneutics that can assist in sermon preparation. Traditionally, preparing a sermon involves an exegesis of the biblical text, interpreting it for today's context, and applying it to the audience. While this process is valid and should continue, the trend in biblical interpretation has been excessively influenced by Western methodologies. As a result, the Bible has often

failed to come alive for contemporary audiences, remaining a historical book rather than a living word.

This paper reviews the history of homiletics and examines modern trends in preaching. It also delves into the history of biblical interpretation to trace methods and challenges that can be applied to contemporary sermons. In this process, a reevaluation of historical criticism is attempted, while exploring the possibilities of Jewish, Patristic, and Eastern interpretations.

In particular, the paper presents the concept of "reframing hermeneutics," which allows us to view the biblical text through today's lens. This approach offers a way to see one's current reality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as illuminated by the Word. "Reframing hermeneutics" involves understanding and applying the principles of Midrashic, Patristic, philosophical, and biblical-theological interpretation. Through this, a richer insight can be gained from the biblical text, and the narrow, rigid views of interpretation that have constrained its application can be expanded with deeper imagination.

To present "reframing hermeneutics," this paper examines the evolution of homiletics and investigates the current aims of modern preaching. One notable finding is that contemporary homiletics increasingly values both audience and narrative. The history of biblical interpretation is also explored, introducing the heritage and strengths of various interpretive practices throughout church history that are essential for "reframing hermeneutics." The paper discusses Midrashic interpretation, which seeks to reinterpret ancient words in today's context, and a balanced allegorical interpretation that pursues spiritual depth through symbolism and profound spiritual meaning. Additionally, it attempts a Christ-centered interpretation that integrates both the Old and New Testaments through a biblical-theological approach, particularl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Kingdom of God.

Key Words: Hermeneutics, Biblical Interpretation, Homiletics, Reframing Hermeneutics, Midrashic Interpretation, Eastern Biblical Interpretation, Patristic Biblical Interpretation



## 참고 문헌

- 김운용. *설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4.
- 김지찬. *언어의 직공이 되라*.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6.
- 신성욱. *청중을 사로잡는 설교의 삼중주*.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9.
- 왕대일. *새로운 구약주석*. 서울: 성서연구사, 1996.
- \_\_\_\_\_. *기독교 경학과 한국인을 위한 성경해석: 경학으로서의 성서해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 \_\_\_\_\_. “성서해석사에서 배우는 설교의 과제,” *신학과 세계* 84 (2015): 7-42.
- 왕대일, 이성민. *구약설교 패러다임: 구약학자의 설교이해, 설교학자의 구약해석*. 서울: 감신대성서학연구소, 2003.
- 이문장. *한국인을 위한 성경연구 (원리편)*. 서울: 이레서원, 2003.
- 이성민. “신학과 해석학과 설교학의 관계성에 관한 연구.” *신학과 세계* 43 (2001): 369-411.
- 이승진. “정창균의 설교학.” *신학정론* 38 (2020.12): 45-99.
- 이현웅. *공감의 설교학*.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7.
- 정창균.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설교*. 수원: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2002.
- Bray, Gerald. *Biblical Interpretation: Past & Present*. Downers Grove: IVP, 1996.
- Brueggemann, Walter. *텍스트가 설교하게 하라 (The Word Militant)*. 홍병룡 옮김.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12.
- Capps, Donald. *Reframing: A New Method in Pastoral Care*.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0.
- Craddock, Fred B. *설교: 열린 체계로서의 귀납적 설교방식 (Preaching)*. 김영일 옮김. 서울: 컨콜디아사, 1989.
- \_\_\_\_\_. *권위없는 자처럼: 귀납적 설교의 이론과 실제 (As One without Authority)*. 김운용 역.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3.
- Davis, H. Grady. *Design for Preaching*.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58.
- Ebeling, Gerhard. *Word and Faith*.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63.
- Epp, Eldon Jan and George W. MacRae eds. *The New Testament and Its Modern Interpreters*. Atlanta: Scholars Press, 1989.
- Eslinger, Richard L. *A New Hearing: Living Options in Homiletic Method*. Nashville: Abingdon Press, 1987.
- \_\_\_\_\_. *설교 그물짜기 (The Web of Preaching)*. 주승중 옮김.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8.
- Evans, Craig A. *Noncanonical Writings and New Testament Interpretation*.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1992.
- Fant, Clyde E. *Preaching for Today*.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 1975.

- Fee, Gordon D. *New Testament Exegesis: A Handbook for Students and Pastors*. Revised ed.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3.
- Fosdick, Harry Emerson. *What is Vital in Religion: Sermons on Contemporary Christian Problem*. N. Y.: Harper, 1995.
- Goldingay, John. *Models for Interpretation of Scripture*. Toronto: Clements Publishing, 1995.
- Goldsworthy, Graeme.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성경신학적 구약 해석법*. 김영철 옮김.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1988.
- Green, Joel B. ed. *Hearing the New Testament: Strategies for Interpretation*. Grand Rapids: Wm. B. Eerdmans, 1995.
- Handelmann, Susan. *The Slayers of Moses: The Emergence of Rabbinic Interpretation in Modern Literary Theory*. Albany: SUNY Press, 1982.
- Hanson, R.P.C. "Biblical Exegesis in the Early Church." In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Bible: From the Beginnings to Jerome*, edited by P.R. Ackroyd and C.F. Evans, 412-45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0.
- Haynes, Stephen R. and Steven L. McKenzie eds. *To Each Its Own Meaning: An Introduction to Biblical Criticisms and Their Applicatio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3.
- Hays, Richard B. *Echoes of Scripture in the Letters of Paul*.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89.
- Lischer, Richard. *설교신학의 8 가지 스펙트럼*. 정장복 옮김.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8.
- Long, Thomas G. "And How Shall They Hear?: The Listeners in Contemporary Preaching." In *Listening to the Word: Studies in Honor of Fred B. Craddock*, edited by Gail R. O' Day and Thomas Long. Nashville: Abingdon Press, 1994.
- \_\_\_\_\_. *이야기식 설교구성 (The Homiletical Plot: The Sermon as Narrative Art Form)*.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7.
- \_\_\_\_\_. *The Sermon: Dancing the Edge of Mystery*. Nashville: Abingdon Press, 1997.
- \_\_\_\_\_. *증언하는 설교 (The Witness of Preaching)*. 이우제, 황의무 옮김. 서울: CLC, 2007.
- Lowry, Eugene L. *설교자여, 준비된 스토리텔러가 돼라 (How to Preach a Parable: Designs for Narrative Sermons)*. 서울: 요단출판사, 1999.
- Moore, Stephen D. *Literary Criticism and the Gospels*.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89.
- Ramm, Bernard. *성경해석학 (Protestant Biblical Interpretation)*.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0.
- Randolph, David James. *The Renewal of Preaching: A New Homiletic Based on the New Hermeneutic*.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69.
- Rice, Charles L. *Interpretation and Imagination: The Preacher and Contemporary*.

-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0.
- Robinson, Wayne Bradley. *Journeys toward Narrative Preaching*. New York: The Pilgrim Press, 1990.
- Rovinson, Haddon W. *강해설교: 강해설교의 원리와 실제 (Biblical Preaching)*. 박영호 옮김. 서울: C.L.C., 2007.
- Sanders, James A. "Torah and Christ." *Interpretation* 29 no.4 (1975): 372-90  
 \_\_\_\_\_ . *From Sacred Story to Sacred Text*. Philadelphia: Fortress, 1987.
- Thiselton, Anthony C. *The Two Horizons: New Testament Hermeneutics and Philosophical Description*. Grand Rapids: Wm B. Eerdmans, 1980.  
 \_\_\_\_\_ . *두지평 (The Two Horizons)*. 권성수 외 옮김.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90.
- Vanhoozer, Kevin J. *이 텍스트에 의미가 있는가? (Is There a Meaning in This Text?)*. 김재영 옮김. 서울: IVP, 2003.
- Wiersbe, Warren W. *Preaching and Teaching with Imagination: The Quest for Biblical Ministry*. Michigan : Baker Book House, 1994.
- Wilder, Amos N. *Theopoetic: Theology and the Religious Imagination*.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6.
- Wilson, Paul S. *The Four Pages of the Sermon: A Guide to Biblical Preaching*. Nashville: Abingdon Press, 1999.